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새로운 시대 여행 주목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주목해야 할 여행지 탐 10’ 잇달아 선정 구룡산전망대&광양만 야경·백운산휴양림 등 新관광트렌드 부합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슬로건으로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광양관광이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선도하며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는 시가 최근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등에 잇달아 선정되는 기쁨을 토하며 급변하는 엔데믹시대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운 시대의 여행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2023-2025 관광트렌드 ‘New Era Trip’을 머리글자로 제시한 10개의 키워드로 광양관광의 핵심 가치와도 부합한다.

‘여행하기 좋은 도시’는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가 포스트코로나, 디지털대전환, ESG 등 변화와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풍부한 관광자원과 지속가능한 관광수용태세로 경쟁력 있는 관광

브랜드를 구축했다는 인정으로 의미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밤이 더 아름다운 야간관광 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포함된 ‘구룡산전망대&광양만야경’도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생활인구 등을 이끄는 체류형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여행의 개별화가 강화되고 개인 취향을 반영한 아웃도어 여행, 캠핑, 차박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공공 우수야영장 20’에 선정된 것도 광양관광의 청신호다.

특히 백운산자연휴양림이 친환경 부문에서 선정된 것은 환경, 생태계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탄소중립 여행이 부상되는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실천하는 것이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광양시가 최근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등에 잇달아 선정되는 기쁨을 토하며 엔데믹시대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주도하고 있다.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캠핑하는 탐방객. <광양시 제공>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관광은 부킹닷컴이 발표한 ‘주목해야 할 국내 인기 여행지 탐 10’에도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잠재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관광도시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디지털전환, 탈경계, 기후변화 등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지속적인 관광매력을 개발해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안착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여수시, 요양시설·도서관 등

여수시는 중대 재해 대상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1000장을 비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수시가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시 관리 주체 대상시설은 모두 70곳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수시청 본 청사와 어린이집, 요양시설, 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들 시설에는 방연마스크를 담은 보관함 100개도 설치했다.

여수시는 화재 사상자의 40% 이상이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피해를 겪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마스크 비치를 추진했다.

배부된 마스크는 화재 발생에 긴급하게 대피할 때 유독가스 흡입을 막아주는 습식 마스크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마스크 비치와 더불어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과 중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농산물 지리적 표시 1호’ 보성 녹차 20일 품질 평가

‘농산물 지리적 표시 1호’로 지정된 ‘보성 녹차’에 대한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뤄진다.

보성군은 오는 20일 북재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업체 품질관리 평가’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엄격한 품질관리로 명품 보성 녹차의 명성을 유지하고 안전한 차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보성녹차연합회(회장 안명순)가 주최한다. 김은혜 전남차산산업연구소 박사 등 15명의 심사위원이 녹차(우전)의 잎 형태, 운기, 우려낸 찻물의 색, 향, 맛, 우린 차의 잎 모양 등을 평가한다.

보성 녹차는 지난 2002년 농산물 분야 지리적 표시 1호로 등록돼 차의 역사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보성 차는 2009년부터 미국(USDA), 유럽(EU), 일본(JAS) 등 국제 유기인증 획득했다.

보성군은 보성 차 우수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



보성군이 오는 20일 지리적 표시 1호로 지정된 보성 녹차 등록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를 한다. 보성의 한 계단식 차밭. <보성군 제공>

다. 차 산업 관련 기업을 유지하고 주민소득이 증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2년, 2014년, 2019년 국무총리 단체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1호로 지정됐다.

보성군 관계자는 “국제시장 대형 프리미엄 상점 입점 등 전 세계에서 보성 차를 만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흙 살리기’ 중장기적 밑그림 나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열려

구례군이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흙 살리기’ 사업의 중장기적 밑그림을 그렸다.

구례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순호 구례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흙 살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해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살려 농업을 발전시키고 흙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 구상안을 보고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연구 용역기관인 한국탄소농업연구소는 구례의 농업토양 환경 현황과 여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구례군 흙 살리기 실현을 위한 비전

과 목표 ▲탄소중립 흙 살리기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2024년~2028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실현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구례군은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한 뒤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거쳐 ‘구례군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흙 살리기 사업은 단순 농업 지원 사업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와 급격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라며 “흙의 가치에 중심을 두고 농업의 전환과 확장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가 최근 승주읍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승주읍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워크숍’을 열고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주민 설명회

순천시 승주읍에 ‘바이오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 육성이 확정되면서 순천시가 지역민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전 모임을 열었다.

순천시는 최근 승주읍민을 대상으로 ‘승주읍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순천시는 ‘남해안벨트 바이오산업 중심도시’를 내걸고 오는 2025년 상반기 승주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승주읍에는 바이오 지식산업센터 등 시설을 기반으로 총 700억원 규모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바이오 헬스케어 부문에는 640억원을 투자하며,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농촌협약사업)에는 60억원이 들어간다.

바이오 지식산업센터는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지상 4층 연면적 9996㎡ 규모로 건립된다.

30여 개 기업 입주공간과 기업 상담실, 회의실 등 지원시설 공간이 들어선다.

승주읍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워크숍에는 승주읍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순천시와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 순천대, 전남대, 사업 시행사 등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과 지역 발전 방향, 기초생활거점(농촌협약) 사업 내용 등을 주제 발표 형식으로 소개했다.

순천시는 최근 순천대학교가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인 ‘글로벌대학 30’에 선정되면서 바이오 헬스케어 주력 산업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팜(첨단농장)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철 승주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사업추진의 주체가 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승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